

인도네시아 대법원, 발리섬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요청 기각

인도네시아 정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행동계획 발표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인도네시아플라스틱재활용협회가 발리섬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조치 조례에 대해 제기한 법적 재검토 요청을 기각함. 해당 판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강력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은 사법 심사 요청을 거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을 개선하고자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오염 감소 : 다중이해관계자 행동계획(Radically Reducing Plastic Pollution in Indonesia: A Multistakeholder Action Plan)'을 발표함. 해당 계획은 2025년까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70%까지 감축,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2040년까지 제로플라스틱오염(near-zero plastic pollution) 달성의 로드맵을 제시함. 해당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수집량은 80% 이상, 재활용량은 두 배 가량 늘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및 확장 할 예정임.